

씨을사상 씨을누리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김 병 동

1. 서: 씨을사상

1) 목적

씨을사상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밝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로 가자는 사상이다. 이 길로 가면 자기 생명과 정신의 씨을이 싹터 꽃과 열매를 맺어, 서로살림과 평화로움이 실현되는 씨을누리를 이룰 것이다. 진정한 선문문화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과 경쟁으로 피폐해진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정서와 문화를 창조적 영성으로 순화시키기 위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씨을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씨을사상은 동서 문명의 만남과 민중의 자각운동으로 전개된 한국현대사에서 형성되었다. 강대국들의 침략과 약탈로 세계는 전쟁과 폭력으로 치닫고 조선왕조는 망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가난과 억압에 짓눌려 신음하던 한민족을 깨워 일으키는 운동이 일어났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 일으킴으로써 ‘나’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안창호와 이승훈의 교육입국운동, 그리고 민족의 독립과 세계평화를 추구한 삼일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씨을사상이 생겨났다. 유영모가 사람을 씨을이라 하고 그 뜻을 인간 존재가치의 핵심임을 밝혔다. 함석헌은 남북분단과 6·25 전쟁의 고통을 겪고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우면서 씨을사상을 닦아냈다. 씨을사상은 국가와 문화와 인권이 무너져 내린 암울했던 시대에 옹달샘같이 솟아난 새롭고 순수한 정신의 열매다.

한 사람 속에서 나라와 세계를 보고 나라와 세계 전체에서 한 사람을 보는 씨을사상은 물질과 기계로부터 인간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한다. 씨을사상은 주체적이고 건전한 생산과 판매와 소비를 추구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일자리 부족, 빈부격차 심화, 공동체 파괴의 현실 속에서 협업과 생활자치공동체를 지향한다.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현실에서 씨을사상은 생명과 정신의 깊이를 드러내고 ‘나’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세계정의와 평화를 실현해가는 실천적 사상이다.

2) 씨울의 정의

ㄱ) 자연생명 ‘씨울’은 문자 그대로 식물의 ‘씨앗’과 동물의 ‘알’을 일컫는다. 씨와 알은 그것을 배태한 한 생명체의 마감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체의 시작이며 생명이 끊이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함을 뜻한다. 하나의 씨울에는 그 생명의 생존에 필요한 유전체 정보와 생존 비법이 내장되어 있다. 씨울은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진화한 생명체의 총체적 대변자일 뿐더러 그 생명을 대대로 이어가야 할 고귀한 사명을 지닌 개체이다. 씨울은 작은 개체이면서 속에 전체 생명을 품고 있다.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와 씨앗을 맺는다.

ㄴ) 사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고귀한 생명의 주체로서 몸과 맘과 얼을 가진 존재다. 사람의 몸은 자연생명의 씨울이고, 맘은 사회역사의 씨울이며, 얼은 신적 생명의 씨울이다. 사람의 몸속에 자연생명진화 과정 전체가 압축되어 있고, 맘속에 인류 역사 전체가 새겨져 있고, 얼속에 영원한 신적 생명의 불씨가 살아 있다. 사람 안에서 자연생명과 사회역사와 얼 생명이 하나로 통합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역사와 신을 통합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아우르는 존재다.

ㄷ) 얼 생명 씨울은 생명과 정신의 알맹이, 알짬이며, 사람의 감성, 이성, 영성을 나타낸다. 알맹이 가운데 알맹이는 영성인 얼이다. ‘씨울’의 ‘울’은 알맹이 알과 얼을 함께 나타낸다. 얼은 하늘(한얼, 한울)과 통하고 하늘은 빔(빔탕한데)이다. 빔에 이르면 자유로운 ‘큰 나’가 된다. 큰 나가 ‘참 나’다. 나, 너, 그의 ‘나’가 각각 ‘하나’로 돌아가서 ‘큰 나’가 되는 것이 귀일이다. 씨울의 원리는 자기 속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것이다. 씨울은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 안의 나를 들춰내어 ‘참 나’를 찾는다. 내 속에서 ‘참 나’를 찾는 것은 다석의 말대로 ‘오!늘’에서 ‘늘(영원)’을 붙잡는 것과 같다.

3) 성격

씨울사상은 한국의 천지인 합일 사상(한 사상)을 바탕으로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 사상과 서구의 기독교, 이성철학, 민주정신을 종합한 세계평화와 통일의 사상이다. 씨울사상은 민중의 자각과 주체를 추구하는 민주사상이며, 주체의 깊이를 추구하는 정신철학이다. 씨울사상은 맑은 지성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여 자연과 사회의 이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성철학이다. 씨올사상은 단순한 이론과 해석의 체계가 아니다. 나를 찾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세상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일으키자는 사상이다. 종교·문화·교육을 개혁하고 민주와 사회정의, 생명과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실천적 사상이다. 씨올사상은 완성된 이론체계가 아니다. 씨올사상은 씨올들의 삶과 실천 속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될 사상이다.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실행하여 나의 주변과 세계의 끝까지 확산해 가야 할 우리사상이다. 씨올사상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다듬어 가는 많은 이들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새 생명으로 싹 틔우므로써 슬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기적을 이뤄 씨올누리로 실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 씨올사상의 연혁적 배경과 현대적 의의

인류는 오랜 시련과 고통의 역사를 거쳐서 봉건신분사회에서 벗어나 민의 자유와 평등을 선언한 민주시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유를 추구한 자본주의사회는 무한경쟁과 탐욕적인 이윤추구에 매달린 결과 오늘날 큰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나친 빈부격차와 일자리 부족, 공동체 파괴와 생태계 오염은 탐욕적이고 불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공동체적인 정의 사회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1%의 부유한 상류특권층에 대한 99% 가난한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등을 추구한 사회주의사회는 인민의 자발적 헌신성과 의욕이 부족하고 사회경제의 활력,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 복지사회의 한계는 자발적 주체성과 헌신성, 공동체적 나눔과 섬김의 정신, 깊은 영성과 강인한 생명력이 부족한 데 있다. 맘을 씻어 맑게 하고 맘을 삭이고 깊이 파서 맘을 곧고 힘 있게 하는 생활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일찍이 유명모는 큰 나라 미국이 벌이를 잘하고 작은 나라 덴마크가 실속을 차려도 사납고 거친 맘을 삭힐 철학(몸 삭힐 줄)이 없으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함석헌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씨올사상은 자발적 주체성과 헌신성, 공동체적 나눔과 사림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철학이고, 깊은 영성과 강인한 생명력을 탐구하고 기르는 영성철학이다.

오늘 한국은 남북분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조화롭게 이끌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와야 할 시대의 사명을 지녔다. 씨올사상은 세계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과 강인한 실천력을 기르는 사상이며 몸으로 실행하고 씨올과 씨올이 만나 함께 실천해가는 사상이다.

1) 역사 · 종교적 배경

ㄱ) 역사적 배경 한국 현대사는 봉건왕조의 몰락과 식민통치, 남북분단과 전쟁, 군사독재와 개발독재로 이어지는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서양문물의 도입과 정치사회의 변혁은 능동적이고 자체적으로 준비된 과정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급진적인 파괴의 고통 속에서 일어났다. 모국어 사용과 역사 교육마저 금지당하는 일제 식민통치 아래서 민족혼의 명맥이라도 유지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들이 여러 각도로 이어져 왔다. 씨울사상은 안창호의 신민회(1907년), 이승훈의 오산학교(1907년), 삼일독립운동(1919년)의 맥을 잇는 사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를 깨워 주체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교육입국운동에서 씨울사상이 생겨났다. 삼일독립선언문에 나타난 민족독립사상은 민족의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동·서양 문명과 종교의 융합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높은 철학을 담고 있다. 안창호와 이승훈의 민족자각운동과 유영모의 영성철학을 이어받은 함석헌은 남북분단과 전쟁, 군사독재 아래서 민주화운동과 민족통일운동에 앞장섰다. 유영모와 함석헌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민중을 깨워 주체로 일으키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발전시키며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였다. 이들의 삶과 사상이 씨울사상으로 압축되었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명제로 표출되었다.

ㄴ) 종교적 배경 씨울사상은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독교 정신과 이성(과학)철학을 받아들인 통합의 사상이다. 씨울사상은 2,500년 전 경에 석가,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예레미야(예수)를 통해 분출한 기축시대의 영성을 통합, 회복하려 한다. 인류정신사를 전환시켜 고등종교들을 탄생시키고 철학을 태동시킨 기축시대의 영성은 인간의 마음(이성과 영성)에서 신적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였고,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황금률의 윤리로 표현되었다.

시대의 제약과 지리적 공간의 한계 때문에 철학과 종교가 분리되고, 기축시대의 영성은 변질되고 타락하였다. 이성과 영성이 분리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철학과 종교가 분리되면 온전한 인류정신문명을 이룰 수 없다. 이른 바 고등종교들은 성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에 머물렀다. 자연과 국가권력에서 신성을 보았던 자연종교와 국가종교로 돌아가 기복신앙과 권력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씨울사상은 민주화, 산업(과학기술)화, 세계화 시대의 사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와 사회, 자연과 우주, 열과 신의 씨울로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꽃과 열매를 맺어 ‘서로 살리고 더불어 사는 씨울누리’를 이루는 사상이다.

2) 현대 세계사적 배경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제무역, 과학기술의 발달로 도시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차원의 불안 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각종 재해와 이변이 일어나고, 환경오염의 총체적인 확산으로 생태계 파괴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쟁과 재난으로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교육, 경제의 발전과 정보통신의 확산으로 시민 사회의 경제력, 판단능력과 성숙도는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고도 전문화, 효율화, 자동화, 국제경쟁화, 자본화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세계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문제다. 현대 인류 문명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지구촌으로 변하는 오늘날 다양한 국가와 민족과 문화와 종교를 화해시키고 공동선을 이루어 나아갈 지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상황이다. 이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하나의 기발한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구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개인과 집단의 안녕과 질서가 확립되고 문화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정신적 기틀과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가능한 일이다.

3) 과제와 의미

ㄱ) 민족적 과제와 의미 한국은 오늘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구가하며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대치 상태의 긴장과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다. 세계로 뻗어나갈 고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창달은 아직도 요원하다. 한민족은 스스로의 능력과 준비 없이 8·15 해방과 6·25 전쟁을 맞아 막대한 혼란과 고통을 치렀다. 앞으로 닥칠 남북통일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성공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민족화합과 절제되고 준비된 국민적 실력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ㄴ) 세계적 과제와 의미 오늘날 인류는 국가와 민족의 벽을 넘어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급속한 변천 가운데 큰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다. 씨름사상은 국가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세계통일의 사상이고, 동서양 기성종교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세계평화를 추구한다. 선진 문물과 문명을 받아들여 충분히 소화하여 자기 고유문화에 동화하고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한국 발전의 귀중한 경험을 어려운 나라에 제공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3. 씨울사상의 내용

1) 유명모의 핵심 사상

ㄱ) 천지인 합일 기축시대 성현들의 가르침과 삶에서 비롯된 이른 바 고등종교들은 성현들의 뜻을 완전히 깨달아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의 고등종교들에는 기축시대 이전 낡은 종교들(자연종교, 국가종교)의 미신적 기복신앙과 권력숭배가 남아 있다. 기복종교는 사람의 탐욕을 이용하여 사람을 물질의 종이 되게 하고, 국가종교는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을 권력자와 제도의 종이 되게 한다.

참된 삶을 추구하던 유명모는 1943년 2월 15일(음력 설날) 이른 아침에 북악(北岳) 마루에서 몸이 하늘과 통하고 맘이 땅의 중심을 꿰뚫는 천지인 합일 체험을 하였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땅 위에 곧게 선 사람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되게 하는 천지인 합일의 책임과 사명을 가진 존재다. 사람은 땅에서 솟아올라 '얼 나'가 되어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하나 됨에 이르러야 한다. 유명모는 사람이 하늘(하나 됨)의 씨알맹이를 품은 '씨울'이라고 하였다. 씨앗이 하늘의 햇빛과 바람, 땅의 흙과 물을 통합하여 생명창조활동을 펼치듯이, 사람은 천지인 합일을 이루어 생명과 정신의 창조 활동을 해야 한다.

ㄴ) 가온찍기 가온찍기는 천지인 합일에 이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씨알맹이가 싹트게 하는 것이다. 가온찍기는 나의 삶 속에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가치를 자각하고 내 속의 한 가운데를 명중시켜 참 나를 찾는 것이다. 이 가온찍기야말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요, 찰나 속에 영원을 보는 것이다. 가온찍기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나의 존재'에서 이름이나 욕심, 부차적인 인간관계와 같은 껍데기를 점찍어 버리고, '살아 있는 나'에 이른다. 둘째, 살아 있는 '나'의 불꽃(생각)을 자꾸 태워 나감으로써 '나'를 새롭게 한다. 셋째, 지금 여기의 자리에서 땅을 굳게 딛고 진리를 실천해 가는 것이다.

ㄷ) 생각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얼이 있다. 이 얼을 사모하여 얼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생각이다. 얼은 하늘의 뜻이므로 생각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나 이성적인 생각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자기를 비우고 불살라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은 단순한 논리와 개념의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맘과 얼이 담긴 생명의 행위이고 얼과 혼의 행위다. 생각은 하늘의 하나님(영원한 얼 생명)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생명과 마음과 얼을 불태우는 행위다. 생각은 하늘과 소통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곳에 하늘이 있고 하늘로 솟아오를 때 '얼 나'인 참나가 태어난다. 날마다 거룩한 생각의 불꽃을 피워 올려 하늘의 말씀을 받아 제소리로 살자는 것이 인생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고 땅과도 통해 천지인 합일을 이룬다.

ㄹ)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어제에 매이지 않고 내일의 걱정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를 영원처럼 사는 것이다. 하루를 일생처럼 사는 것이 '하루살이'요 '오늘 살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눈을 뜨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죽는 것이다. 하루살이는 날마다 '새로 남'과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오늘 살이'는 오늘 참되고 영원한 삶을 맛보는 것이다. '오늘'에는 '늘(영원)'이 들어 있다. 유영모는 '오늘'을 '오! 늘'이라 하여 오늘에서 '늘'(영원)을 잡으려 했다.

ㄹ) 몸성히, 맘놓아, 바탈 태우며 살기 사람다운 사람이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유영모는 스스로 그렇게 살았으며, 천지인합일, 가온찍기, 줄곳 뚫림, 거룩한 생각을 통해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사람에게에는 세 가지 바탈(本性)이 있다. 몸의 감성, 맘의 지성, 얼의 영성이다. 바탈 중에 바탈은 얼의 영성이다. 몸이 성하면 감성이 뚜렷하고 감성이 뚜렷하면 지성이 맑아지고 지성이 맑으면 얼(뜻)이 솟아오른다. 몸이 성하면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놓이면 바탈(본성)이 살아난다. 바탈이 살아나면 개성이 자라고 개성이 자랄수록 더 깊은 바탈을 느끼게 되어 자기의 바탈을 파고들여 간다. 바탈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인생은 한없이 발전해가며 이 바탈을 타고 하늘에까지 도달한다. 내가 나로 되는 일은 '하는 것'이면서 '되는 것'이다. 내가 힘껏 하면서 위의 힘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유영모는 "사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사람을 사니 사람 노릇을 하기처럼 쉬운 것은 없다"고 했고 "내가 할 일은 쉬는 것뿐"이라고 했다.

2) 함석헌의 핵심 사상

ㄱ) 내가 씨울이다 내 속의 속에 생명과 정신의 씨울맹이가 있다. 내 씨울맹이의 뿌리는 한없이 깊다. 수십억 년 생명진화의 역사, 2백만 년 인류사, 5천 년 민족사가 나의 몸과 맘에 새겨져 있다. 내 속에 우주보다 깊고 우주보다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들어 있다. 몸으로는 작고 덧없는 존재이나 속에는 무궁한 생명을 품고 있다. 나는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이고 역사

를 후세에 전달하는 매체이며, 역사의 알맹이 실체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나다. 내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여 참 나가 되어야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나다!” 하고 서야 한다. 내가 살았으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흥해도 흥한 게 아니다. 사람은 마땅히 죽어도 죽지 않고, 망해도 망하지 않는 ‘나’로서 살아야 한다. 씨울은 스스로 싹트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다. 생명은 남이 대신 살 수 없다. 내가 씨울이 되고 내가 씨울로 살아야 한다. 씨울은 작고 보잘것 없다. 씨울은 꾸미지 않고, 돋보이려 하지 않으며, 겸허하게 낮은 데 설 줄 안다. 함석헌은 70대 중반의 늙은 나이에 독재정권과 싸우며 ‘씨울의 소리’를 내느라고 힘들 때가 많았다. 잠시 힘이 빠져 늘어졌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람 되어야지!”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씨울이 되는 것은 저 자신이 되는 것이며, 사람이 되는 것이다.

ㄴ) 생각하는 백성 지나간 역사를 이어 새 역사를 짓는 자리는 사람의 몸과 마음 속에, 생각하는 머리 속에 있다. 사람이 역사를 짓는 주체다. 생각함으로써 역사의 뜻을 깨닫고, 역사의 주체가 되고, 새 역사를 짓는다. 생각하는 것은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 새 역사의 실마리를 잇는 것이다. 때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나로 되어야 한다. 물건이나 환경, 다른 사람이나 일에 매이지 않는 ‘나’를 찾아야 한다.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 이김과 짐, 잘 남과 못 남, 칭찬과 비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나’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나를 찾기 위해 나의 속을 깊이 파 반석과 같은 나를 발견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로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나를 살리고 내가 산 사람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 자신이 죽어 있고, 저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나라를 바로 세우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만이 나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민주(民主)가 된다.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분별하려면 생각해야 한다. 함석헌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하였다. 생각해야 내가 살고, 나라가 바로 선다. 생각하는 사람이 옳은 길로 가서 나와 남을 구하고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

ㄷ) 비폭력과 세계평화 21세기에 이르러 인류역사는 비로소 민족국가시대에서 세계평화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민족국가시대는 당파심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요, 세계평화시대는 전체심과 비폭력이 이끄는 시대다. 세계평화시대는 민족국가의 종교문화 전통과 가치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승화시켜 열매맺게 한다. 인류생명의 씨울인 사람은 속에 생명과 정신의 깊이를 가지면서 개체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나타낸다. 기축시대의 성현들이 사람의 내면에서 발견한 신적 생명과 영원한 가치는 사랑, 자비, 인(仁), 진리였다. 이것은 인간주체의 깊이와 인류전체의 보편을 함께 나타낸다. 인간내면의 본성 속에 숨겨 있는 신적 생명과 가

치는 세계평화를 실현할 힘과 토대다.

당파심과 폭력으로는 세계평화를 이룰 수 없다. 당파심은 물질적 이해관계로 뭉친 것이요, 폭력은 물질의 힘에 굴복한 것이다. 당파심과 폭력은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고 짐승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세계평화주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자는 것이고 사람답게 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평화는 사람의 내적인 힘과 전체의 마음으로 이룰 수 있다. 내적 힘과 전체 마음은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며, 물질과 기계의 힘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고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내적인 힘과 전체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비폭력이다. 폭력을 쓰는 것은 내가 먼저 짐승이 되어 남을 짐승으로 다루는 것이다. 사람이 되려면 먼저 폭력 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남이 내게 폭력을 쓸 때 폭력으로 맞서 싸우면 서로 짐승이 되는 것이다. 남이 휘두르는 폭력을 당하고만 있는 것도 자신을 짐승 대접하는 것이고 남을 짐승 노릇하게 두는 것이다. 폭력에 대해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폭력 쓰는 자를 사람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폭력 투쟁은 나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적을 구원하는 싸움이다.

4. 씨을의 깨달음과 수행

아는 것이 힘이다. 인류문명은 철학, 과학, 기술, 문화, 종교의 발달에 힘입어 진화했다. 변화의 주체는 개인에서 출발한다. 자신이 씨을임을 깨닫고 씨을이 되어 씨을로 살기 위해서는 공부와 수행이 필요하다. 깨달음을 위한 씨을의 수행에는 유영모의 천지인 명상과 함석헌의 생각명상이 있다. 유영모는 명상을 위해 체조와 숨 명상법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5. 씨을누리

씨을사상이 그리는 세상은 씨을이 씨을이 되고 씨을로 만나 함께 이루어가는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씨을누리다. 씨을사상이 더욱 발전하고 널리 퍼져 씨을 정신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온 세상에 씨을누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 씨을사상이 그리는 씨을누리의 여러 차원

거대 국가와 다국적 거대 기업의 경쟁적 독과점에 의한 과학기술의 격차, 경제의 격차, 교

육의 격차, 기성 직장의 붕괴,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 자본주의 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사적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이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오늘의 시대는 새로운 경제 사회 철학의 진지한 모색을 요구한다. 한국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응할 뿐 아니라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지혜의 총화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 씨울은 '깨어 있는 백성'의 수준을 넘어 '준비된 백성', '선도하는 국민'의 차원으로 승화해야 한다. 씨울사상도 새 시대의 큰 미래상을 가지고 여러 차원에서 씨울 정신과 원칙을 확인하고, 서로 살리고 더불어 사는 씨울누리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천 운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ㄱ) 씨울사상과 생명과학 씨울사상의 핵심은 생명존중 사상이다. 한 생명체가 지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각자의 유전적 소질과 처한 환경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더욱 큰 공동선을 이루는 훌륭한 문명사회는 씨울 하나하나가 이기적인 작은 나(거짓 나)를 넘어서 '얼 나'(참 나)로 깨어났을 때 가능한 인간 생태계다. 환경과 교육은 타고난 유전자의 한계도 크게 뛰어넘게 하며 후대에 유전되게도 한다. 건전한 생활습관, 식습관, 체력단련, 예방의학의 장려로 현대 편의위주 문명의 병폐를 극복해야 한다. 깨어 있는 씨울이 충만한 국가 사회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ㄴ) 씨울사상과 정치 민주정치는 씨울정신에 따른 자치(自治)다. 민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정치다. 민의 자치를 위해 바닥에서 생활자치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에서 서로 돕고 돌보는 공동체적 연대와 관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민의 생활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 삶을 보살피고 민의 뜻을 받드는 일꾼들을 선출해야 한다. 바른 일꾼을 바로 뽑는 것이 민주와 자치의 첫 걸음이다. 한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자주 경제는 외부의 도움만으로는 결코 확보될 수 없다. 깨어있는 백성의 내생적인 힘이 모아졌을 때 비로소 나라는 세세토록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하여 수없이 보아왔다.

ㄷ) 씨울사상과 경제 사람은 돈의 주인이지 종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요, 스스로 하는 존재다. 개인도 기업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에게 활동과 사업의 자유를 주어야 하나 돈과 시장과 기업이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돈과 시장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고 품위 있게 사는 데 있다. 돈과 시장이 사람의 삶을 착취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서로 이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뤄야 한다. 더 나아가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서로 통

하여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있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야 한다.

ㄹ) **씨울사상과 종교** 교통과 통신이 폭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천 년간 두꺼운 벽을 쌓아온 종교들 사이에 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구촌을 평화롭게 구원할 방법은 기존 종교들의 틀을 초월하여 통섭(通涉)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명의 주체인 씨울들이 깨어나 맑은 지성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 지구촌 온 누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미독립선언문 작성에서도 여러 종교를 수용하고 평화공존의 모범을 보여 온 한국은 동서양 종교와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사상과 문화운동을 제시할 세계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상과 종교는 생명을 살리고 지성을 맑히며 얼을 키우는 씨울생활종교여야 한다. 지금은 씨울의 시대다. 씨울이 깨어나 역사의 주인이 될 때 새 세상, 즉 씨울누리가 열릴 것이다.

ㄹ) **씨울사상과 교육** 참된 교육은 자신의 정체가 고귀한 씨울임을 스스로 생각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씨울임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매임이 없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음을 알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한다. 물질주의적인 이기적 욕망의 달성만을 위해 학생들에게 무제한적인 지적 경쟁을 시킨다. 자기가 누군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엔 관심이 없고 대책이 없다. 오늘 폭력과 자살로 내몰리는 우리 학생들의 비참한 참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학생들을 이런 불행의 경주로에 몰아넣고 더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우리 부모들과 교육자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씨울 교육은 이런 학생들을 해방시켜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고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ㄹ) **씨울자치 협동 생활공동체**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을 찾아 꿈틀거린 역사다. 자유와 평등이 만날 길은 사랑에 있다. 사랑은 자기를 비우고 초월하여 돈과 권력, 기계와 제도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서로 주체가 되어 나눔과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의 자유와 평등을 지킬 수 있다. 지도자나 민이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طم이 없고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자발성과 헌신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사람다운 사람인 씨울만이 사랑과 신뢰, 자발성을 지니고 헌신할 수 있다.

스) 국가를 넘어 세계로 자본의 세계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씨울의 세계화는 여러 가지 장애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국가와 세계의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다. 씨울이 돈의 주인이라면 씨울의 세계화가 자본의 세계화보다 앞서 가야 한다. 그리고 자본의 지배와 수탈에 맞서 씨울의 자치 협업 생활 공동체가 지켜져야 한다. 세계화는 인류역사의 큰 흐름이므로 자본과 시장의 세계화도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과정은 세계 민중의 상호이익과 사권이 증진되고 생명과 정신의 가치가 실현되고 민생과 자치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씨울누리의 실현

사람이 씨울이 되어 씨울로 만나 씨울로 사는 세상이 씨울누리다. 씨울누리를 이루려면 먼저 자신이 씨울임을 깨닫고 참되고 영원한 얼 생명의 씨울이 싹트게 해야 한다. 서로 생명의 알맹이와 주체인 씨울임을 깨닫고 서로 씨울을 싹틔워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서로 나눔과 서로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 씨울의 생명이 싹트고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와 세력에 맞서 싸우며 씨울누리를 열어가야 한다.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씨울의 삶과 참된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 경제, 정치, 종교 등 각 분야에 적합한 씨울실천운동을 발전시켜 참다운 씨울누리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할 것이다.

[주] 이 글은 씨울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씨울사상연구회가 간행한 '씨울사상 씨울누리'를 축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씨울사상 씨울누리'는 2011년 10여 명의 회원들이 가진 정기 연구집회를 마무리하며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서, 필자는 글의 큰 틀을 구성하였고, 김병동, 박재순(씨울사상연구소 소장), 홍성환 회원이 집필의 큰 부분을 맡았음을 밝힌다.